



그림을 만나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성격심리학」 강의페어링

심리학과 3학년 201221928 손슬기, 홍성기 교수님 지도

목적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거의 즉각적으로 첫인상을 형성한다. 이는 인지심리학 관점에서,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 최대한 자원을 아끼려는 인지적 구두쇠이기 때문이다. 첫인상을 형성한다는 것은 비단 사람에만 국한되지 않고, 예술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음악을 들었을 때 바로 호불호가 나타나듯이 그림 또한 마찬가지이다. 본 글에서는 미술 작품을 보고 받은 첫인상을 의인화해 보았다. 그리고 의인화한 대상의 간단한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글을 제시한 후, 이를 성격심리학의 특성적 관점 중 하나인 BIG5 이론에 근거하여 분류하였다.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의 강의페어링

사회의 철학과 예술의 개념은 계속해서 확장 및 변형되고 있으므로, 시대에 따라 인정받는 작품은 가지각색이다. 미술사에서 유명한 작품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상자의 미적 태도와 미적 체험이다.

예술 작품처럼, 동일 인물이 수용자에 따라 정반대의 성격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는 우리가 성격의 양면성을 가져서 타인에게 비쳐지는 모습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이거나, 개인마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성격심리학」에서의 강의페어링

사람들은 100이면 100, 모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성격인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몇 개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을 큰 덩어리로 묶을 수 있다.

예술작품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모두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지만, 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술작품에 내재하는 공통점을 기반으로 인상주의,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등으로 구분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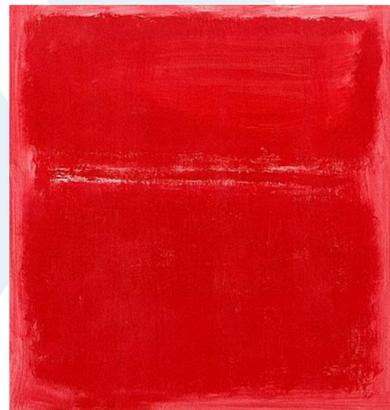
작품에 대한 감성의 의인화

‘오채묵향전’에서 만난 세 점의 꽃그림은 보면 볼 수록 매력이 있고 정감이 가는 작품이었다. 물가에 핀 꽃들이 애처로워 보이면서도 강인해 보였다. 세 작품의 공통된 인상으로부터 외유내강의 소녀를 생각하게 되었다.

‘로스코전’의 로스코 채플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 그런 감상으로부터 죽음의 문턱에 있는 어느 가장(家長)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한편, 로스코의 유작을 보며 작품이 울부짖고 절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는 치명적인 매력을 가졌지만 자기 자신까지 망가뜨리고 마는 팜므파탈을 연상시켰다.

마지막으로 김소정 작가의 작품들은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다. 작품에서 온기가 느껴졌지만 왠지 낯설기보다는 차분하다는 인상을 받았기에, 워킹맘의 퇴근을 기다리는 조금은 외롭지만 사랑스러운 어린이를 연상했다.



▲마크 로스코, 무제



▲김소정, With You II

강의페어링 적용 가능 사례

첫 번째 외유내강의 여인은 초면에 낮을 가리고 사교적이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잘 지속한다. 일에서도, 사람에게도 성실하다. 보수적이긴 하지만 또래보다 생각의 깊이가 깊다. 예민하기 보다는 등근 사람이다.

두 번째 암 투병 중인 어느 가장은 사회 생활을 하며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기 보다는 이 악물고 참고 버틴 적이 더 많다. 그러나 그에 대해 불평하기 보다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웃어 넘긴다. 신중함과 높은 책임감은 그의 덕목이다. 반복된 생활 패턴으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만 스트레스를 비교적 잘 견디고 늘 침착하다.

세 번째 팜므파탈 여인은 화려한 외모의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지만, 인간 관계가 깊어진 적은 없다. 남의 연인을 유혹하는 일을 예사로 안다. 생각은 얕으나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극도로 예민하고 정신상태가 불안정하다.

마지막 어린이는 소심하지만 사교적이고 솔직하다.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랐으며 착하고 친절하다. 학업도 우수하며 품행도 단정하고 바르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가족, 친구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송영방, 연(蓮)

결론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볼 때, 작품을 보는 방법의 추천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답인 것은 아니다. 작품을 바라보는 방법은 여러가지 있고 그 중에 나는 사람을 만나듯 그림을 만났다.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내가 말하지 않는 한, 아무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작품을 감상하는 동안 자유롭게 상상하고 작품에 대해 내 마음대로 코멘트해 보았다. 이러한 감상법을 누군가에게 절대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한 번쯤 추천해보고 싶다. 이 감상법을 통해 작품을 적극적인 자세에서 감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